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10월 첫 번째 28권 17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2003 평화마라톤 대회
상호방위조약 50주년 기념식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국군의 날 특집

6면 자유 공간
Area I 카투사/미군 우정 주간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김지영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1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

카투사 신문 강병삼

9월 30일 용산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 행사 중 국기에 경례 중인 조영길 국방부장관, Thomas Hubbard 주한 미 대사, 한미연합사 사령관 Leon J. LaPorte 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대장.(2면에 기사)

미8군,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지원

지난 9월 19일, 18의무사 장병들은 한국군을 도와 구조활동을 해달라는 요청을 흔쾌히 승낙하였다.

용산에서부터 담요, 식량, 기저귀, 생수와 의료 물품을 포함한 구조 물품들을 싣고 간 미군 UH-60 블랙 호크 헬기 두대와 한국군 헬기 한대가 향한 곳은 강원도의 봉정리라는 한 마을이었다.

그 지역에 도착하자 그들은 무너진 집들과 옆의 부푼 강에 의하여 부서진 다리를 보고 피해 범위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헬기로 봉정리에 도착한 의료진을 포함한 구조원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눈물과 포옹으로 환영 받았다.

한국군과 같이 구조활동을 하게 된 18의무사의 환경 보건 고문 Robert Pipkin 중령은 "이곳에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나 찾아보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gt. Lisa Jendry/ Eighth Army PAO

1-52항공대대 장병들이 봉정리 주민들을 위한 보급품을 나르고 있다.

미국 예방 의학은 예전부터 화재, 허리케인, 태풍과 홍수들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조 활동을 하며 전세계적으로 널리 간접적인 재난 관리에 참가하고 있었다.

"우리는 남미와 중미에서도 구조 활동을 하였으며 이런 활동은 익숙하다"고 Pipkin 중령은 말했다.

또한 그는 간접적인 재난 관리 임무를 할 때에는 몇 가지 목적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우선 긴급임무에 필요한 의료 물품들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이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임무가 어떠한 임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그들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 모두 같이 그곳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2 면에서 계속...

한미친선을 위한 2003 평화마라톤 대회

미8군 공보실 상병 윤종필

개회식에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미 8군 사령관 Charles Campbell 중장

지난 10월 3일, 한미 친선을 위한 2003 평화 마라톤대회가 한강고수부지 잠원지구에서 열렸다.

강남 구민들과 주한 미 8군 장병들이 함께한 이 친선 평화 마라톤의 취지는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평등에 이바지하자는 것이었다.

강남구 체육회가 주최한 이 마라톤은 약 1만명의 내국인들과 1,000명의 미 8군 장병 및 그 가족들이 참가하였고, 미 2사단 태권도 시범단과 미 8군 군악대가 이 행사를 위해 멋진 무대를 선사하였다.

이번 마라톤을 준비하는데 참가하였던 미 8군 민사처의 Steven Jung 중위는 "처음에는 강남구에서 우리에게 한/미의 동맹 관계와 서로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친선 행사를 하지 않겠냐고 연락이 와서 흔쾌히 승락하였으며 서로 협력하여 이 마라톤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마라톤을 위해 왔지만, 한강변에서 달리는 동안 서로 어울리며 친해지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17항공여단 본부중대 Michael Hughes Jr. 일병은 "독특하고 색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과 교류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어 기쁘고 이런 행사들이 좀더 많이 준비되어 한국인들과 더 어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1통신여단 본부중대 Robert Triplett 중사는"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과 미군들, 그들의 가족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은 운동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마라톤이 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마라톤 대회를 매우 성공적이라고 보았다.

카투사 교육대 박종민 병장은 "이번 마라톤에서 잘 뛰어서 기쁘지만 더 기쁜 이유는 아름다운 한강 옆에서 내가 같이 일하는 미군, 또 한국사람들과 함께 달렸다는 것"이라는 참가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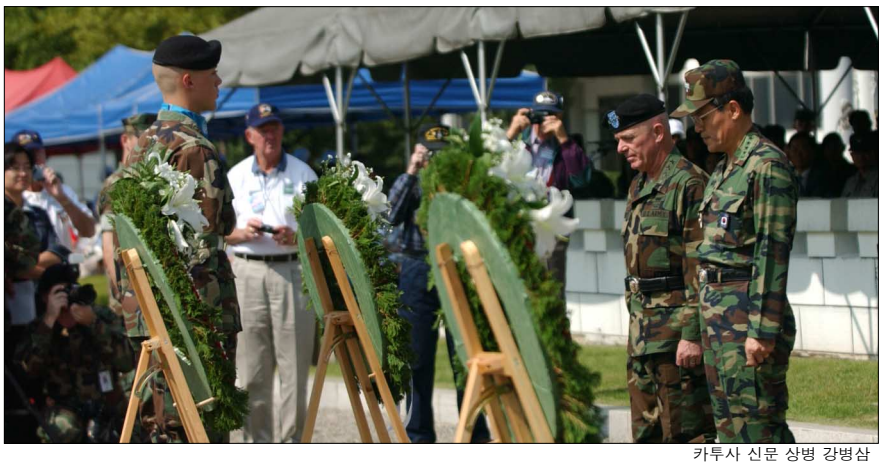
"평소 만나지 못하던 미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는 마라톤 참가자 유철희 씨는 "서로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종류의 행사는 분명히 서로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미8군 공보실 상병 윤종필

미8군 공보실 상병 윤종필

출발 신호와 함께 대회 참가자들이 한강변을 달리고 있다.

상호방위조약 체결 50 주년 기념식



카투사 신문 상병 강병삼

기념식에서 헌화하는 LaPorte 대장과 신일순 대장의 모습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50년 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공식적으로 조인되었고, 한국 국회와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은 후,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양국을 방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50주년을 하루 앞둔 9월 30일, 용산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이를 기념하고 동맹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한미동맹은 우리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냉전시대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했고 탈냉전시대에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뒤이어 단상에 선 Thomas Hubbard 주한 미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통해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며 "조약체결 5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동맹이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헌화에 이어 예포가 울려퍼지며 마무리되었다. ■

상병 강병삼

태풍피해 복구

1면에 이어서...

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들을 걱정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면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더 도와줄 수 있는가를 찾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1-52항공대대 A중대 UH-60 조종사 Nicholas Dille 중위는 작년 태풍 루사 구조 활동에 이어 올해에도 이에 참가했다.

"작년에도 똑같이 두 대의 블랙 호크가 속초에 가서 이번과 똑같은 구조 활동을 4~5일 정도 하고 왔습니다. 수재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받을 때 기뻐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 저 또한 기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범위한 피해 지역에 헬기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착륙하는 것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헬기 구조 팀의 일원인 Chad Wilson 상병은 "이것은 군에서 훈련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임무이며 이 임무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다른 어떠한 일을 할 때 보다 더 기쁘다"며 구조 활동에 참가한 느낌을 말했다. ■

Sgt. Lisa Jendry/ Eighth Army PAO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쇄창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A 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8376/4683/7998(fax)임.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강병삼
기자
상병 장승모
이병 김택현

Eighth U.S. Army Commander
LTG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Steven A. Boylan
Command Information OIC
CPT Mary J. Constantino
Editor
CPL Kang, Byung Sam
Staff Writers
CPL Jang, Seung Mo
PV2 Kim, Taek Hyun
Special Assistant
Mr. In, Pu 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A,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8376/4681/7886(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imddong@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kangbys@usfk.korea.army.mil

■군상식

COBRA

전세계 육군은 거의 모두가 자국군의 무장현대화 계획에 바퀴형 장갑차량 도입을 결정하고 있어 이전의 궤도형 보다 바퀴형이 장차전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터키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여 자국군을 무장시키고 있으며 오토카르社는 바퀴형 장갑차의 결정판이라고 자랑하는 코브라(COBRA)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오토카르社의 코브라 바퀴형 장갑차량은 강력한 기동력과 상대적으로 뛰어난 방탄보호능력 및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장 큰 장점이다.

제공사진

산악지대를 주행하는 COBRA

코브라 계열의 경장갑차량은 미국의 AM 제너럴社로부터 HMMWV 차량 부품을 도입해 생산되고 있으며 설계작업에도 AM 제너럴社의 도움을 받았다. 현재 터키 육군이 5대를 시험운용중이며 몰디브 공화국도 3대를 도입해 운용중에 있다.

코브라 경장갑차량은 컴팩트한 외형과 수송기나 헬리콥터로 운반이 가능해 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트럭이나 철도편으로도 운반이 가능하다.

단조강을 사용한 넓은 차체와 출입문은 병력의 신속한 승하차를 가능하게 해주며 지붕의 해치는 여닫기에 매우 편리하도록 설계됐다. 차량의 병력탑승인원은 용도에 따라 4명에서 12명까지 쉽게 개조할 수 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수륙양용키트는 조이스틱으로 조종되는 유압식 이중추진장치와 밀폐형 배기구등으로 구성되며 옵션장비를 장착한 코브라 차량은 별도의 준비없이 도강이 가능하다.

넓고 탁트인 방탄창문은 넓은 시야를 확보해주며 전자식 성에 제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추운 겨울철의 시야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고온다습한 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에어컨디셔너가 표준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좌우와 후면에도 관측을 위한 창이 설치됐다.

코브라 경장갑차량의 다양한 변형모델에는 7.62mm 또는 12.7mm 기관총과 40mm 자동유탄발사기 또는 30mm 이상의 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야간투시장비나 열영상시스템을 장착한 조준시스템도 설치할 수 있다.

단체(單體) 구조의 차체는 적으로부터의 관측을 어렵게 해 동시에 차량의 생존력을 높여주며 펑크염려가 없는 타이어를 장착해 적으로부터의 사격에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코브라 차량의 차체는 소총, 기관총 및 포탄의 파편으로부터 승무원 및 탑승병력을 보호해준다. 또한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에 대비해 차량 하부 장갑에 특히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져있다.

차량에는 조종석과 차량 바닥에 복합장갑판을 덧대어 보호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켜주는 추가장갑설치도 가능하다.

코브라는 8기통 190마력 터보 디젤엔진으로 구동되며 출력 對 중량비는 톤당 30마력이다. 4단 자동변속기는 전자식으로 조종되며 독립적인 완충장치와 중앙통제식 타이어 공기압조절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코브라 경장갑차량의 모든 기계 부품은 AM 제너럴社가 개발한 HMMWV의 부품과 호환성이 있어 수리나 예비부품 조달을 위한 군수지원면에서도 우월함을 보이고 있다.

제공사진

COBRA의 문을 모두 개방한 모습

코브라 경장갑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15km이며 정지상태에서 60km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3초로 가속성능도 양호한 편이다. 코브라의 작전반경은 725km이며 외부 연료탱크 사용시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다.

코브라 경장갑차량의 많은 변형모델들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무와 각군이 제기한 소요에 따라 장갑병력수송차량, 對전차공격용차량, 정찰차량, 지상감시레이다차량, 전방관측차량, 장갑구급차량, 장갑지휘차량 등으로 생산되며 12.7mm 기관총과 25mm 포 및 TOW 등의 對전차유도미사일 또는 지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501정보여단 본부중대
병장 홍기석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에서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못 읽던 책을 많이 읽고 영어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카투사로서 자유시간을 적극 활용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원들과 선후임의 관계를 넘어서 형,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늘 열심히 노력하는 와중에 좋은 추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부디 개인적으로나 다른 카투사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남기고 보람차게 제대하고 싶습니다.

501정보여단 524정보대대
병장 최윤석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며 건강을 유지하겠습니다. 또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며 반성을 하는 등 군 생활을 잘 정리할 생각입니다. 곧 제대한다고 게으른 생활을 하게 되는데, 더더욱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여 부대의 후임병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같이 입대한 동기들아, 남은 군 생활 잘하고 전역하고 보자!

501정보여단 532정보대대
상병 김준수

어느덧 자대에 온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그 동안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동안의 군 생활은 무엇보다 부대 일이 항상 우선이었기에, 함께 일하고 친한 미군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풍습에 대해 가르쳐주고 함께 했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틈틈이 동물원이나 전자 상가 등에 같이 가곤 했지만, 꼭 올해가 가기 전이 아니라도 앞으로 미군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함께 즐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501정보여단 본부중대
병장 김용민

갓 취임한 여단 선임병장이라 의욕이 넘치며, 포부도 큽니다. 제가 선임병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후임 카투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 좀 더 단합된 501정보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미군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역 후 복학에 대비, 전공 공부 및 진로 탐색을 하려 합니다.

건군 5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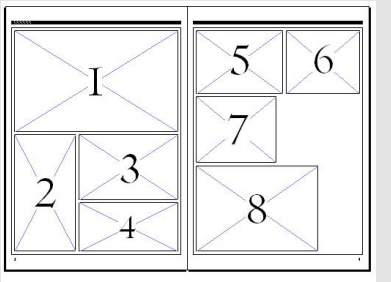
국군은 10월 1일 서울공항(K-16)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어 5년만에 광화문 등에서 시가행진을 벌이는 등 건군 55주년을 기념, 축하하는 성대한 행사들을 치렀다.

수 개월 간 모여 행사를 준비한 1만 2000명의 육, 해, 공군 장병들과 각군 사관생도들은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사열을 받았으며, K1A1전차, K-9 자주포, 미스트랄, 수중 어뢰 등의 각군 주력 무기들도 국군의 위용을 드러내었다. 무인항공정찰기 등의 신형 장비를 선보이는 기회도 있었다. 창군 원로들과 6.25,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행진 또한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항공기들의 편대비행과 고공강하, 공중 탈출 시범, 에어쇼 등 서울공항 상공을 장식하는 고난이도의 연출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한미군 소속의 아파치 공격헬기 10대와 강하 요원 6명이 국군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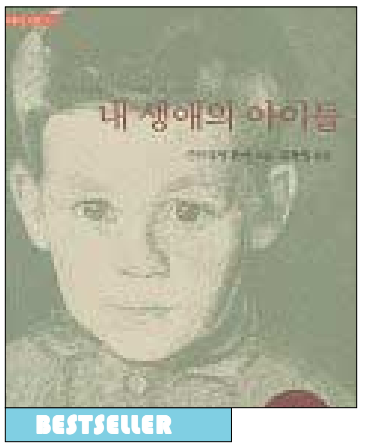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가안보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10년 안에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추고,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는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군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여건을 개선해 선진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상병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1. 국군의 날 기념식 중의 서울공항 전경
2. 공중탈출 시범
3. 자주포 부대의 행진 모습
4. 열병식에서 보병 부대가 줄지어 행진하고 있다.
5. 이날 공개 시범을 보인 우리 군의 무인항공정찰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가 차량에 실려 행진하고 있다.
6. 창군원로들의 행진 모습. 이외에 재향군인회 인사, 전쟁 미망인 등의 행진 순서도 마련되었다.
7. 수송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십명의 강하 요원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8. 노무현 대통령이 조영길 국방부장관, 제병지휘관 박승춘 중장과 함께 행사장의 장병들과 사관생도들을 사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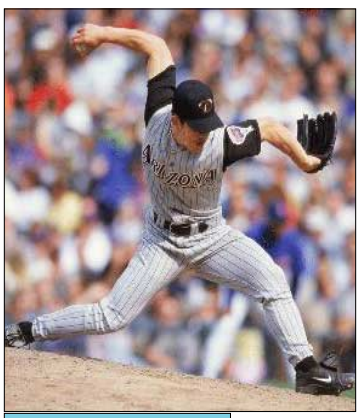


BESTSELLER

내 생애의 아이들

가브리엘 루아 / 현대문학

광활한 대평원을 배경으로 사랑스러운 풋내기 시골 여교사와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교감의 드라마. 이 책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감동적인 성장소설이자 교육소설, 더 나아가 인생 찬미의 대서사시인 작품이다. 어린 시절에서 성년으로 옮아가는 시기의 고뇌와 수줍은 마음의 떨림을 이를 데 없이 섬세하고 여운이 긴 필치로 그려 보인다.



WEBSITE

엔의 메이저 리그

good617boy.cafe24.com

오늘날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중의 하나를 꼽으라고하면 야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는 확실치 않지만 미국하면 바로 프로야구를 떠올릴만큼 미국인들의 메이저 리그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메이저 리그를 한눈에 볼수있는 MLB 역사, 팀 및 선수, 통산기록/진기록, 사진, 동영상 등을 수록한 홈페이지이다.

■ 자 유 공 간

Area I KATUSA/U.S. Soldiers' Friendship Week

2사단 공보실 류후선

줄다리기 경기에서 포병여단 장병들이 힘을 쏟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캠프 케이시의 아이언 필드에서 2003년 카투사/미군 우정 주간 행사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미 2사단 부사단장 John Shortal 준장과 한국군 지원단장 김덕곤 대령, 미 2사단 지역대장 박성호 소령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사단 군 목사 Michael Tarvin 중령의 축도로 막을 열었다. 이어 '카투사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카투사 제도에 관한 소개가 이어졌다.

미 2사단 지역대장 박성호 소령은 축사에서 "카투사들의 일년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역할과 위상을 되새겨보는 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이 자리에 모인 카투사들은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들이며 세계 최상 미육군의 정예 전투사단의 일원으로 미군들과 함께 훈련하고 좋은 팀웍을 이루며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카투사들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는 사단장, 각급 지휘관, 카투사 프로그램의 발전에 헌신하는 지원단장, 행사 준비에 수고한 한미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Shortal 준장은 축사에서 "카투사/미군 우정 주간은 동료애와 스포츠 정신이 어우러진 멋진 축제"라고 카투사/미군 우정 주간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한미 병사들간의 우정, 더 나아가서 한미 두 민족간의 우정을 꽃피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카투사들은 각자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미 2사단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들의 한국어와 영어 구사 능력, 문화와 지형 등에 관한 지식은 미 2사단의 성공 여부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례 행사는 우리 병사들의 공적을 알리고 치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 2사단의 모든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모든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3년 카투사/미군 우정 주간 축하 공연으로 많은 팀들이 나와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동두천 여상 고적대는 신나는 음악으로 한껏 흥을 돋구었으며, 바윗소리 국악예술단은 한국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선보였고, 보영여고 댄스팀은 힘이 넘치는 율동으로 병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공연은 한국군 6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이었다. 신기에 가까운 그들의 격파술과 날렵한 그들의 몸동작에 병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미군들은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의 강한 파괴력에 많이 놀라는 모습이었다.

공연을 관람한 James Lucero 미 2사단 주임원사는 "카투사와 미군이 함께 어울려 운동 경기를 하고 즐거운 파티를 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하나됨을 볼 수 있었고, 이 모든 축제가 한미 연합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고 공연을 본 소감을 전했다.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 각 공연팀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오후에는 각 종목별 결승전이 열렸다. 전날 이루어진 실내 종목인 농구와 배구 결승을 제외하고 기마전, 축구, 씨름, 줄다리기, 태권도, 응원에서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 관중들도 신나는 치어걸들의 치어리딩에 맞추어 자신의 소속 부대를 혼신의 힘을 다해 응원하였다. 종합 우승은 포병여단이, 종합 준우승은 2여단이, 종합 3등은 1여단이 차지하였다.

직접 씨름에 참가하여 포병여단을 씨름 우승으로 이끈 2/17 포병대대 지원대장 조민호 상사는 "카투사와 미군이 모두 잘 따라주어서 우승할 수 있었다"며 "미 2사단은 비록 미군 부대이지만 한국땅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카투사/미군 우정 주간뿐만 아니라 다른 미 2사단의 스포츠 행사에서도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뜻에서 씨름, 태권도 등의 우리 운동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우승한 2여단 1/503 보병대대 정병권 상병은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기에 의존했지만 10게임을 같이 경기를 하니 점점 팀웍이 맞아서 우승할 수 있었다"며 "카투사/미군 우정 주간은 카투사와 미군이 친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1/506 보병대대 최병수 상병은 관람하면서 "전투보병이라 훈련이 많은 편인데 훈련에 나가기 전에 이런 행사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치어리더들의 미소와 율동으로 모두 흥겹게 즐기고 있다. 부모님을 초청하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훈련에 나가서도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모든 경기와 시상이 끝난 후 Shortal 준장은 폐막사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열심히 행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승리자이고,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수호와 한미 평화를 위한 우호증진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

2사단 공보실 류휴선

지원여단과 포병여단의 씨름 대표선수들이 서로 맞붙고 있다.

일병 이형일/ Indianhead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22 장

*천천히 가. 여긴 학교 지역이잖아.

전세계 어디서나 학교 앞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언제 차도로 뛰어들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쓰는 표현을 연습합니다.

Topic : "천천히 (차)몰아. 여긴 학교 지역이잖아."

"Slow down, it's a school zone. "

주제연구)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할 때는 area를 씁니다. 하지만 정해진 '지역' 또는 '구역'을 의미할 때는 zone이라고 합니다.

A: Slow down, it's a school zone.

B: Uoops! I didn't know that.

A: And honking is prohibited also.

B: Is that so?

번역)

A: 천천히 몰아. 학교 지역이잖아.

B: 엄마야! 깜빡했었네!

A: 그리고 경적을 울려서도 안돼.

B: 아, 그랬어?

덧붙여)

미국인들이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Uoops!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어머나', '깜짝이야', '원, 세상에' 정도의 의미가 되지요.

*차도 한가운데로 건너지마.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대로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종종 차만 없으면 냅다 행길 한 가운데로 뛰어 건너지요.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Topic : "차도 한 가운데로 건너지 말아요"

"Don't cross in the middle of the street."

주제연구)

cross는 명사로는 '십자가'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Red Cross 아시죠? 하지만 동사로는 '건너다' 또는 '가로지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A: Sweetie, listen to me, don't cross in the middle of the street.

B: Okay mom, don't worry.

A: And when you come home, will you help me cut the lawn?

B: No problem, I will come home just after school.

번역)

A: 아기야, 내말 잘 들어, 도로 한 가운대로 건너면 안 된다.

B: 알았어 엄마, 걱정 마.

A: 그리고 돌아 와서 엄마 잔디 깎는 것 좀 도와 줄 수 있어?

B: 문제 없어, 수업 끝나면 바로 올께.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운전을 하다 위반을 하면 경찰이 운전자에게 하는 말이 바로 위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엔 워낙 많은 차량 도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Car registration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Topic :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Can I see your driver's license and car registration?"

주제연구)

등록증이라는 의미의 registration은 'register(등록하다)' 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A: Can I see your driver's license and car registration?

B: But what did I do wrong, officer?

A: You were doing 50 miles an hour in a 30 mile an hour zone.

B: Oh, please, but the sign was so small and illegible.

번역)

A: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B: 제가 무슨 잘못을 했지요, 경찰관 아저씨?

A: 시속 30 마일 지정 지역에서 50 마일로 달렸습니다.

B: 너무 하시는군요,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안 보였어요.

*정지 신호 위반입니다.

운전 중 딱지를 떼이는 대부분의 경우는 '정지선 신호 위반'때문이지요. 특히,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자주 경찰에게 걸리잖아요? 이런 경우의 연습을 합니다.

Topic : "정지 신호 위반입니다.(빨간 신호등인데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You ran a red light."

주제연구)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라는 표현을 영작하기 어려우시겠지요? 그러므로 Run a red light. 라는 표현은 꼭 익혀 두셔야하겠죠?

A: Your driver's license, please?

B: Officer, is there any problem?

A: You ran a red light at the intersection.

B: I didn't know that.

번역)

A: 운전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B: 경찰 아저씨, 무슨 문제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요?)

A: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잖아요.

B: 몰랐어요.

*계단 조심하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bus를 탈 때 (노약자분들은) 계단에서 자주 사고를 당합니다. 이런 경우,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계단 조심하세요."라고 외치십니다. 이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Topic : "계단 조심하세요."

"Watch your step!"

주제연구)

watch 라는 말은 단순히 '보다' 라는 의미를 넘어 '주의 깊게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Will you watch my bag for a while? 이라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 가방을 좀 봐주시겠어요?"라는 의미입니다.

A: Lady, watch your step.

B: Oh, thanks. By the way, is this going downtown?

A: Sorry, you've got the wrong bus. You can get off at the next stop and take number 567.

B: I appreciate it.

번역)

A: 아가씨, 계단 조심 하세요.

B: 오, 고마워요. 그런데 이 버스 시내로 가나요?

A: 미안하지만 버스를 잘못 타셨네요.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하셔서 567번을 타세요.

B: 고맙습니다.

덧붙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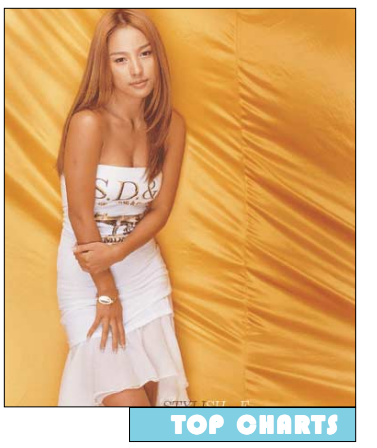
'버스에서 내리다(get off), 버스를 타다(take)' 라는 두 가지 표현을 꼭 익혀두십시오.

이퀄리브리엄

감독: 커드 위머

주연: 크리스찬 베일

3차 대전 이후의 21세기초 지구. '리브리아'라는 새로운 세계는 독재자의 통치하에, 국민들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약물'프로지움'에 의해 통제된다. 이곳에서 전사로 양성된 특수요원들은 투약을 거부하는 반역자들을 제거한다. 정부 최고 요원인 '존 프레스턴'은 동료의 자살, 아내의 숙청 등으로 인해 괴로운 감정에 휩싸이고, 투약을 중단하며 통제됐던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효리

10 minutes

2.Without your love/JTL
3.With me/휘성
4.I swear/S
5.만취 in Melody/ 은지원
6.덩그러니 / 이수영
7.다신 / 이정
8.아직 못다한 이야기 / 김진표
9.유리 / 김정훈
10.Missing you/Fly to the Sky
11.체념 / 코요테
12.오리 날다 / 체리필터
13.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 거미

가을을 머금은 맑은 미소 김지영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복길이' 역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연기자 김지영씨를 만났다. 현재 출연 중인 일일드라마 '백조의 호수'촬영 세트장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의 씬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TV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김지영씨는 시종 활달하게 웃으며 인터뷰에 응해주었고, 본 기자에게 음료수를 사주는 여유도 보였다.'백조의 호수'의 계속되는 인기와, 올 겨울 개봉될 그녀의 출연작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그리고 곧 있을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 인터뷰를 마친 후 훌륭한 연기자이자 아내로서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분 좋게 방송국의 문을 나섰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연기자 김지영입니다. 1974년 9월 7일 생이고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비록 연기 전공은 아니지만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데뷔하게 된 동기

대학을 입학한 지 얼마 안되어 브로드웨이 뮤지컬 '캣츠'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때 공연을 보면서 '연기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창작 활동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연기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연기 공부를 시작하였고, 다행히 연극 오디션에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연극을 보러오신 한 PD분에 의해 TV 드라마에 출연도 하게 되었고요.

-최근근황

현재 일일드라마 '백조의 호수'에 출연 중이고요, 연예가 정보를 전달하는 모 방송국 프로그램 '연예 로드 쇼'에서 MC를 맡고 있어요. 또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12월 초 개봉할 예정이에요.

-올 겨울 개봉할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저에게 있어서 이번 영화는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막 영화나 까메오 정도로 출연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비중 있는 역을 맡기는 처음이거든요. 출연진으로는 차태현씨와 김선아씨, 홍경인씨가 있고요, 영화의 배경은 유성 온천이에요. 크리스마스 동안 온천에서 이루어지는 이 곳 토박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장르는 코믹 멜로이고,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웃음)

이 영화에서 제가 맡은 역은, 항상 탈출을 꿈꾸는 온천 토박이예요. 백화점 주차장 도우미를 하는 '향숙'이라는 역인데, '온천 아가씨'에 선발되어 일본 등 외국을 돌아다니는 당찬 꿈을 꾸는 아가씨예요. 하지만 결국은 좌절이 되고 고향에서 친구들과 우정과 사랑을 엮어나가지요. 극 중 '향숙'은 겉으로 센 척을 하고 담배도 피우는데 이 역을 위해서 담배를 배우느라고 혼났지요. (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기억에 남는 작품은 많은데요, 단계적으로 보면 우선 '전원일기'를 들 수 있겠고, 그 이후에는 '그대 그리고 나', '토마토', 그리고 현재 출연 중인 '백조의 호수'예요. '전원일기'에서는 제 연기에 백 프로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시청자에게 어느 정도 배우로서의 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대 그리고 나'는 인생의 진솔함을 잘 살린 드라마였고, '토마토'에서는 꼭 해보고 싶었던 악역을 맡아 연기를 했지요. 그리고 현재 '백조의 호수'에서는 세련된 면과 함께 푼수 끼도 있는 한번 즈음 해보고 싶었던 역을 하고 있어요.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이제는 '장희빈'과 같이 조금 복합적인 면을 가진 역을 해보고 싶어요. 인간이 악하게 변해 가는 과정을 연기해보고 싶고, 아니면 다중인격장애를 지닌 역을 해보고 싶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많은 성질들이 극명하게 표출되면 다중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이러한 역을 하면 물론 어렵기도 하겠지만 연기 폭도 넓어지고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연기하고 싶은 남자 연예인?

곧 결혼할 남성진씨와 연기 호흡을 가장 많이 맞추어 왔지요. (웃음) 그리고 같이 연기 호흡을 맞추고 싶은 연기자가 있다면, 최민식 선배님을 들 수 있겠네요. 최민식씨와 연기든, 연극이든, 혹은 영화든 꼭 한 번 같이 연기해 보고 싶네요. 그 분에게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요. 열정적이시고, 거친 듯 하면서 그 순수한 느낌이 매우 매력적이고 저도 그런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촬영현장에서였어요. 시장에서 울면서 나물을 파는 그런 씬이었는데 촬영을 끝내고 나오자마자 어느 아주머니께서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가슴에는 붕어빵을 한아름 안으시고요. 드라마에서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전 임신을 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역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진짜로 그런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힘들겠지만 꾹 참고 견디라고, 좋은 날도 있을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붕어빵을 주셨어요. 제가 극 중 입덧을 하면서 붕어빵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연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날 지켜본다, 내가 맡은 역을 대충하는 것은 죄악이겠구나' 이런 생각을요. 이후로 제 연기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취미

점묘화 그리기나 십자수를 좋아해요. 제가 좀 생각이 많은 편인데 점묘화를 그리거나 십자수를 할 때에는 거기에 집중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하다보면 문득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를 때도 많아요.

-군인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

군인은 항상 멋져 보여요. 제 이상형은 무언가 정립되어 있고 뚜렷한 이상향을 가진 사람인데요, 군인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군인이 멀지만은 않게 느껴져요. (웃음)

-카투사에게 한마디

카투사가 되려면 영어실력은 필수이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만큼 카투사분들은 모두 똑똑하시리라 믿어요. 아무쪼록 군생활 하시면서 사회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들 경험하시고 또 배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우리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몸 건강히 제대하세요! ■

상병 장승모

프로필

생년월일: 1974년 9월 7일
혈액형 : A형
키: 163cm
몸무게: 45kg
학교: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졸

카투사 신문 장승모

카투사 신문 장승모